



그동안 발간된 문학들 표지 모음. <문학들 제공>

계간 문학들 '올해의 작품상' 제정한다

등단 10년 이내 광주지역 작가 등 문학성 위주 심사...연말 시상계획 내년 상반기 '대학문학상' 제정도

지역문학의 침체가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지만, 문학 출판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심각하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들 가운데 젊은 작가와 시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신예들은 중앙 무대로 진출한 나머지, 가능성 있는 젊은 피들의 지역 활동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광주의 문학 상황은 어느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대도시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문학관이 없는 도시라는 현실은 문학인들의 자조가 된 지 오래다. 여기에 책 구입을 가장 적게 하는 도시라는 불명예까지 더해지면 광주의 문학 출판 인프라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된다.

그러나 열악한 지역 문단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종합문예지 '문학들'을 발간해오고 있는 출판사가 있다. 바로 도서출판 심미안(대표 송광홍)이

그 주인공이다. 심미안은 지난 13년 간 문학들(통권 51호)을 발간해오는 동안 침체된 지역문단을 활성화하고 문학담론을 제시해왔다.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발굴 소개해온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이번에 출판사 심미안은 지역 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또 다른 의미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름 아닌 '문학들 올해의 작품상'과 '문학들 대학문학상'을 제정하기로 한 것.

지난 2005년 삶과 문학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편집 방향을 기지로 창간된 '문학들'은 이번 작품상 제정을 매개로 또 한 차례 지역 문단의 활성화라는 건진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의 작품상'은 해마다 심사가 진행되는 시집(매월 8월 31일 예정)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발간된 문학작품과 계간 '문학들'에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은 등단 10년 이내의 지역작가와 10년 이후라도 첫 작품집이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문학상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창작집을 발간한 출판사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수상작이 결정되면 계간 문학들에 게재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 현재 구체적인 상금의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문학상에 자사 출판사에 한정하지 않고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

은 이례적이며 그 자체로 '문학적'이다. 그만큼 문학성 하나로 가능성 있는 신예들을 발굴하고 성원하자는 의미다.

송광홍 대표는 "상금 액수는 확정되지 않아 공표하기 어렵다. 재원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지금 꼭 필요한 일이라는 공감대를 편집위원들과 나눴다"면서 "문학상다운 문학상의 기준은 작품성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올곧게 원칙을 지켜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문학상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올 연말에는 문학들 문학상 첫 번째 수상자가 배출될 전망이다. 또한 상금이 많은 적든, 수상자에게 일정한 상금을 수여해 실질적인 문학상으로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제정 예정인 대학문학상은 지역 문학 토대를 일구고 유망한 청년작가를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뜻이 모아졌다. 내년 5월에 공모를 마감할 예정이며 전남·북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문학청년들의 작품을 해마다 공모해 수상작을 가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학문학상 제정은 대학문학상 전문가 사라져버린 작곡의 현실을 반영, 청년문인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지역 문학적 토양을 비옥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5·18 정신 담아...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도전하세요

4월16일~19일 접수

제8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가 '오월 길 걸어 평화의 숲으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전국의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창작곡을 모집한다.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노래하는 음악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오월창작가요제는 지난 2010년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해 시작됐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이번 가요제는 오는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창작곡을 접수받으며 같은 달 23일부터 27일까지 1차 음원 및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개 팀을 선정한다. 이어 현장 경연으로 진행되는 2차 예선을 통해 최종 10개 팀(곡)이 본선 무대에 오른다.

오월창작가요제는 5·18 민주항쟁을 기억하고, 오월의 정신을 담은 노래뿐 만 아니라 편견을 거부



지난해 오월창작가요제 본선 모습.

하고 부조리에 맞서는 자유와 저항의 노래,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 정신이 담긴 노래, 진솔하고 개성 있는 삶과 사랑에 대한 노래, 그리고 시대 정신이 담긴 노래들을 기다리고 있다.

접수에는 국적, 나이, 장르에 제한이 없으며 CD나 온라인 음원으로 정식 발표한 적이 없고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순수 창작곡만 접수가 가능하다.

오는 5월 26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에게는 대상 1000만 원(1팀), 금상 500만 원(1팀), 은상 300만 원(1팀), 동상 200만 원(1팀), 장려상 100만 원(6팀) 등 총 260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정보는 오월창작가요제 홈페이지(www.maymusicfesta.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82-0518.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관현악곡 공모

광주문화재단 10월22일~31일

5·18 광주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브로 한 관현악곡 창작작품을 공모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대중화, 세계화 등 문화 콘텐츠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문화재단은 10~15분 길이의 관현악곡을 제작한다.

광주문화재단은 2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내·외 신인 및 기성 작곡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작품은 국내·외 미발표 작품으로 표준 2관편성으로 오케스트라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풍요롭고 다채로운 작법이 드러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를 참조해 공모신청서, 작품설명서, 악보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오는 11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악보심사를 거쳐 3개 작품을 선정한다. 최우수작에 1000만원, 우수작 700만원,佳作 5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작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 원본.

선정된 관현악곡들은 향후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한 시연 기회와 5·18 행사 등에서 연주된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임을 위한 행진곡' 관현악곡 창작 작품 공모는 대중화, 세계화라는 취지에 따라 나이, 학력, 국적에 제한이 없다"며 "창작곡을 통해 노래 속에 담긴 의미가 잘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피아노 두 대를 위한 리스트 교향시

내일 피아노학회 호남지부 연주회

한국피아노학회 호남지부(회장 김경아 광주대 교수) 정기연주회가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프란츠 리스트의 교향시와 랩소디를 두 대의 피아노로 편곡된 곡을 연주한다.

리스트는 헝가리 출신으로 피아니스트와 작곡가로 활동했으며 '편곡의 왕'으로도 알려져 있다.

'교향시 랩소디'를 장슬기, 강혜령이 선보인다. 이어 김형미, 이슬, 임인수, 정지민이 '헝가리안 랩소디 9번'을, 서윤진, 이미은이 '돈주앙의 회상'을, 김준현, 박희익이 '교향시 오르페우스'를 준비했다.

이밖에도 신지혜, 정희연이 '메피스토 왈츠'를, 성지영, 송지영, 최선희, 최유진이 '교향시 전주곡'을, 김경아, 이주영, 김민희, 김여진이 '헝가리안 랩소디 2번'을 무대에 올린다.



이미은

장슬기

피아니스트 신지혜는 선화예고 재학 중 도독해 독일 예센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이며 선화예중, 전남예고 출강 중이다.

장슬기는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석사 및 연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전남예고에 출강중이다. 문의 010-6331-6834.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국립남도국악원 '청소년 국악체험' 운영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은 오는 28일 전라남도학생교육원을 시작으로 2018 청소년 국악체험을 운영한다.

2018 청소년 국악체험은 전남 문화 소외지역 청소년들이 국악공연 관람과 더불어 국악배우기, 민속놀이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박 2일과 당일체험과정으로 운영한다. 올 한 해 동안 총 4개교, 17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난 2월 참여 학교 사전공모에 7

개교, 17관이 신청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국악을 통해 심명나는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번 체험은 학교 급별 공연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국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남도국악원 홈페이지(jindo.gugak.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061-540-4038.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천만홀릭 커밍순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

경리 이원석 신동엽 김기방 은지원

CHANNEL A